

『 일본의 달맞이 주산야 (십삼야)에 대해서 』

일본에는 가을 밤하늘에 떠오른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는 ‘오츠키미’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해지기 시작한 시기에 보름달을 보고 즐기는 것은 일본 가을의

풍물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일본의 ‘오츠키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츠키미】

오츠키미란, 1 년 중에서 하늘이 가장 맑게 개는 날에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달을 바라보며 즐기는

행사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것은 ‘주고야(십오야)’입니다. ‘주고야(십오야)’는 중국에서

전해져 온 문화로 음력으로 날을 세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매년 9 월 중순에서 10 월

초순 사이에 있으며 2020년도의 주고야(십오야)는 10 월 1 일이었습니다.

또, 일본 고유의 문화로 알려진 ‘주산야(십삼야)’라는 풍습도 있습니다. ‘주산야(십삼야)’도 주고야와

같이 매년 해마다 날짜가 다르며, 융해의 ‘주산야(십삼야)’는 10 월 29 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주고야(십오야)’는 달님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주산야(십삼야)’는 추수를 끝내고 아름다운 달을 즐기며 벼를 수확한 기쁨을 나누며 가을 추수에

감사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주산야(십삼야)’ 문화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

주고야(십오야)와 마찬가지로 헤이안시대의 천황들이 달맞이 연회를 열어 가무를 즐겼다는 것이

오츠키미 문화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물】



주고야(십오야)와 같이 주산야(십삼야)에도 공물을 바치면 오츠키미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농작물 . . . 밤, 콩 등의 갓 수확한 농작물을 바치고 가을 수확에 감사해합니다.

○억새 . . . 액운과 재해 등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고 다음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억새도 공물로 바칩니다.

○당고 . . . 가을 수확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달모양을 따서 만든 동그란 당고를 쌀아올려 달에게
바칩니다. 주산야(십삼야)에서는 13 개의 당고를 쌀아올리는데 첫번째 층에는 9 개,
두번째 층에는 4 개로 맞춰서 나열한다고 합니다..



시원한 가을 밤에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면서 당고를 먹거나 오츠키미에 걸맞는
분위기로 방을 꾸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츠키미’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MIF)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
- 일상 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